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남 은 영** · 최 유 정***

본 연구는 한국 여가문화의 유형과 사회계층 변수별 차이를 규명하는 한편, 계층 변수가 여가의 객관적, 주관적 차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전국 가구에 거주하는 1376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가장 많이 영위되는 여가활동은 TV/DVD/비디오 보기이고 그 밖에도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선호된다. 여가 유형은 “활동형”과 “음주형”, “휴식형”, “관계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여가의 기능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여가의 목적으로는 휴식과 재충전이 가장 중시되고, 유용한 대인관계 형성이 그 다음이다. 또한 자유시간에 일 생각을 많이 하는 등 여가에 대한 효용감이 낮다. 셋째, 관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에서 고학력, 고소득층의 참여 정도가 확연히 높다. 휴식형 여가에서는 교육과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주부의 참여도가 전 여가유형에서 높은 가운데,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준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넷째, 여가활동의 객관적 수준을 나타내는 여가활동지수에 대한 소득, 교육, 직업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활동지수가 여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 직종별로는 학생이 여가만족도가 높고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은 낮다. 동거가족수는 여가만족도와 반비례한다. 활동형 여가가 가장 여가만족도가 높고 음주형 여가가 가장 낮다.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자주 즐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활동형 여가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향상시킨다.

핵심단어: 여가, 사회계층, 교육, 소득, 직업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8-BM0005).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 neylee@hanmail.net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cyj1003@hotmail.com

I. 문제제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소비와 여가 영역에서의 계층 격차는 그다지 가시적이지 않았다. 각종 소비재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급되고 있었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여가시간 자체를 가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주의 가치관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 경제적인 부를 드러내기 보다는 자제하는 겸양의 미덕이 지배하였다(김문겸, 2004).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고도화, 개인소득의 향상으로 중산층의 저변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영역이 급팽창하고 대중의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의 변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80년대 이후 시작된 대중소비주의와 대중여가시대의 개막으로 인해 중산층 의식이 확산되면서 ‘마이카-외식문화-여가’의 시대가 열리는 한편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도 변모하게 되었다. 여가와 소비생활에서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시적인 소비행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성공적인 사회적 삶이 소비와 여가를 통해 확인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계층적 차별성이 소비와 여가의 영역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계층적 차별화가 정착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데,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급격히 양극화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존의 연구들(이정우·이성립, 2001; 최희갑, 2002; 조성원, 2005; 민승규, 2006; 홍종학, 2006)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지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생활에서도 계층별 차별화가 심화된다. 외환위기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직가능성의 증대,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위축 현상이 가속화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대적인 소비여력 감소로 실속형 소비가 한 축으로 지속되지만 이와 함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명품소비가 확산되고 고가품시장도 성장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의 양극화현상과 소비지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강태욱·윤종일, 1999). ‘여가’라는 삶의 영역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은 여가가 계층별 격차가 양극단의 형태로 가시화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보다는, 삶의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는 소비 사회로의 발달로 인해 산업화 시기에 통용되었던 일과 노동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약화되고 여가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될 것이라는 희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들은 우리 사회가 여가를 단순히 “업무를 떠나 자유롭게 되는 시간”, “노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 정도로 간주해온 통념에서 벗어나 여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여가 개념을 노동 위주의 의식구조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의미로 재정립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기분전환 뿐 아니라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로까지 인식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가 향유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 낙관론 속에는 실제 여가의 영역에서도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여가활동 참여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계층적 변수들은 여가에 있어 차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얼마나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즉 얼마나 시간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소속 계층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여가는 소비와 관련하여 사회적, 구조적인 불평등이 발현되고 재생산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한국사회에서 여가 활동의 영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가에서 실제 사람들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그 전체 양상에 있어서 한 사회를 구획화하는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종의 “해부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회계층 변수인 교육, 소득, 직업의 세 변수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 변수들이 여가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인 추세 속에서 여가생활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와 불평등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일은 궁극적으로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여가 활동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가활동의 유형과 여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있어 사회계층 변수인 교육, 소득, 직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가. 차이의 구체적인 양상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여가활동의 객관적 수준을 수치화한 여가활동 지수와 여가활동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에 있어서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궁극적으로 계층 변수에 따른 차이가 삶의 만족도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유형

여가 활동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선 여가를 나름의 위계를 갖는 것으로 보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내쉬(Nash, 1960)처럼 여가를 봉사활동, 창조 및 창작활동, 운동, 등산 등의 적극적 활동과, 관람 및 감상, TV 및 라디오의 청취와 같은 소극적 활동, 약물 및 알콜 중독, 도박처럼 개인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분류하여 고차원에서 저차원까지 서열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가를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로 나눈 파이어스톤과 셸턴(Firestone and Schelton, 1988) 역시 여가활동을 적극성, 완전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하는 입장이다.

단순히 여가 활동의 성격에 따른 분류체계를 사용한 학자들의 경우, 그 구분의 일관성을 찾기는 더욱 힘들다. 카플란(Kaplan, 1960)은 여가를 사교활동과 조직활동, 게임, 예술, 이동활동, 비이동활동 등으로 나누는가 하면, 맥케니(McKehnie, 1974)는 손과 도구를 이용하는 조작적 활동,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을 만드는 공작적 활동, 활동적, 의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적 활동, 일상 주변에서 행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 활발한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여가 행위를 범주화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관광공사(1985)는 행락 및 관광, 모임 및 사교, 감상 및 관람, 스포츠, 취미·교양·창작, 놀이·오락, 기타 수동적 활동으로 여가를 구분하였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은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 취미·오락, 휴식, 기타 사회활동의 8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개별 연구자로는 윤인진·김상운(2003)이 여가를 소극적, 적극적 활동과 소비적, 생산적 활동, 집안에서의 활동과 집밖에서의 활동으

로 분류한 바 있다.

이렇게 여가 유형에 있어 공통의 협의가 부재한 것은 여가 활동 자체가 배타적인 범주로 구분되기 어렵고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유롭게 행하는 활동들을 분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실제 한국사회에 맞는 여가의 분류체계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귀납적으로 규명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어떠한 여가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떤 활동들이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범주화되는지 그 유형을 도출해내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한국인의 여가활동 패턴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우리 사회에 적합한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분류기준을 모색하는 시론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2. 사회 계층과 여가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의 증대라는 시류를 반영하듯, 서구의 경우 일찍부터 여가 연구가 하나의 학문 영역을 구축하였고,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 경부터 이 분야의 연구물들이 빠르게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주로 자신의 학문 분야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가를 주로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로 보는 공통된 경향성을 견지했다. 이는 대다수 여가 연구가 주로 관광,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학 관련 분야에서 진행된 까닭에 그 초점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 행위자'에 맞추어져 있었던 탓이다.

선행연구들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성원들의 여가 실태를 밝히거나 관련 변수를 규명하는 내용 등 '개인'에 대한 논의가 기초를 이루는 가운데, 여가를 영위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차별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구의 경우 여가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주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한편, 인구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종과 민족(Bocarro and Thompson, 2008; Chieh-Lu Li et al., 2007; Philipp, 2000), 이민자(Stodolska and Santos, 2006; Juniu, 2000) 등의 여가 유형 패턴의 특수성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히는 연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는 서구와 국내에서 모두 자주 다루어지는 대상들이 존재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의 여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왔고(Nimrod, 2007; Heather, 2006; 최성애, 1999; 성희자·전보경, 2003; 신정화, 1995), 선도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에 대한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Larson et al., 1997; Jackson et al., 1995; 최미숙·최동숙, 2003; 서우석, 2007; 이철원·조상은, 2001; 박소정, 2002). 여성의 여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상당히 깊어지고 다변화되는 추세이다(Henderson and Hickerson, 2007; Henderson, 1996; Kay, 2000; 김혜영, 2004; 이만형·이철원·조남기, 2004).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은 “이민자” 연구나 “여성”에 대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성원 개개인이 여가를 스스로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이상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가를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부족으로 이들은 행위자를 넘어선 거시적 맥락, 즉 실제 여가 활동의 영역에 존재하며 개별 행위자의 선택과 취향을 강제하고 한계를 부여하는 사회구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물론 사회 불평등과 여가를 접목시켜 설명한 경우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1950, 60년대에 이미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에 참여하고, 전문노동자가 비숙련노동자보다 약 2배 정도 활동적인 운동을 많이 하며(Graham, 1959), 권위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은 낮은 계층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영위한다는 몇몇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Clarke, 1956; Burdge, 1969).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보드리야르나 베블렌 등의 계급 논의를 여가에 접목시키려는 이론적인 시도와 함께(Rojek, 1990, 1995,) 통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작업들 역시 활발하였다.

16세 이후의 경험과 사회적 지위가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Furlong et al., 1990), 인종과 여가 선호, 계급의식을 변수로 중산층 계급의식을 가진 흑인과 백인들이 여가 선호에 있어 유사성을 띤다고 주장한 연구(Floyd et al., 1994), 소득과 가장의 교육수준이 여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경우(Dardis et al., 1994), 여가활동이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인종 등에 따라 다중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음을 보인 연구(Lee et al., 2001), 자아존중감과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제약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경우(Raymore et al., 1994) 등 그 초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사회 계층 변수들을 다수의 독립 변수 중 하나로 취급하여 인종, 성별, 종교, 가족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층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해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종속 변수가 주로 여가 선호, 여가비 지출, 여가 활동 제약감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층 변수가 여가 및 삶에 미치는 보다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여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힘을 얻으며 여가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줄었지만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을 계급과 계급재생산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들로 제시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계급론에 기반한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그 중 사회 자본의 개념의 적용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모색한 연구(Warde, 2005; Troy and Hemingway, 2005), 여가에 대한 문화자본의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규명한 연구들(박상곤, 2006; 조광익, 2006; 한신갑·박근영, 2007; 박상곤, 2006)이 활발히 진행된 편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추세라 할 수 있는 “고상한 배척자(highbrow snob)로부터 다중취향(omnivore: 포괄적 감상자)으로의 역사적 전환”이라 표현되는,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폭’이 계급별로 차별적인 문화 자본임을 주장하는 ‘다중취향 가설’을 여가의 영역에 직접 적용한 경우는 아직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 자본이나 문화 자본 중 선택하여 여가와 연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계급간의 차이나 불평등의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별개로 구조적 불평등이 발현되는 영역으로서 여가를 다루고, 계층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데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으나(김재현, 1996; 서우석, 2007; 김영명·이명옥, 2000; 윤인진·김상운, 2005) 축적된 자료의 양적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특히 사회학적 시각을 반영한 논문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가에 작용하는 구조적 힘으로서의 ‘사회계층’에 초점을 둔 자료의 양적 축적에 기여하는 한편, 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로서의 교육, 소득, 직업 변수 각각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계층 변수가 여가 선호나 여가비 지출 등 여가의 일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의 객관적인 측면인 여가의 특성과 여가활동 지수, 여가의 주관적 측면인 여가 만족도,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함으로써 여가와 관련된 계층 변수의 설명력을 다차원적으로 밝히려 한다는 데에 본 연구의 차별적인 특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연구절차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의 여가 및 사회계층 관련 문항들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로 최초의 표본 크기는 2,500이고, 조사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이다. 조사는 2007년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응답거부를 제외한 최종 응답자의 유효사례수(valid responses)는 1,376명이다.

2. 주요변수의 측정: 측정도구

1) 여가 활동의 유형

TV·DVD·비디오 보기, 영화 관람, 쇼핑, 독서, 문화행사 참가(콘서트, 라이브극장, 전시회 등), 친척이나 친구 만나기, 카드나 보드게임, 음악 듣기, 운동하기, 운동 경기 관람, 수공예, 인터넷/컴퓨터 하기, 낮잠, 술 마시기, 노래방 가기, 사우나·온천·찜질방 가기, 가족·친구·친지 등과 전화로 이야기하기의 각 항목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여가활동 지수

여가활동 지수는 위의 18가지 여가활동을 각각 어느 정도 자주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수치를 모두 합한 복합지수로서 여가활동의 범위와 빈도를 모두 고려한 변수이다. 최소값은 18점이며 최대값은 90점이다.

3) 사회 계층변수

독립변수로는 교육, 소득, 직업 변수를 활용했다. 교육은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으로, 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직업은 관리/전문직, 사무/준전문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노무직, 무직¹⁾, 주부, 학생의 7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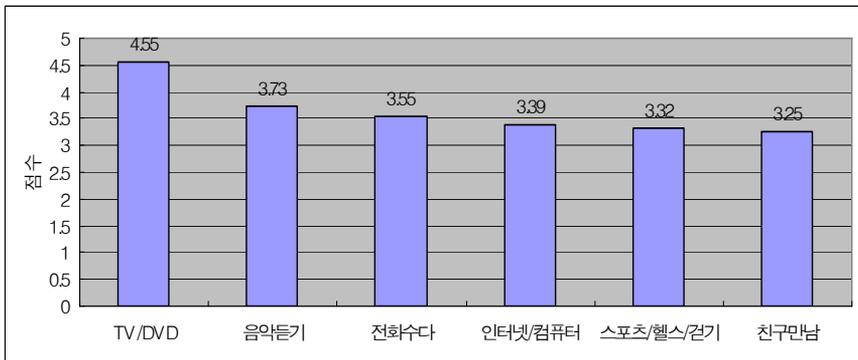
IV. 결과 및 분석

1. 한국사회 여가 문화의 특성: 여가 향유의 전반적 실태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영위되는 여가활동은 TV/DVD/비디오 보기이고, 음악듣기, 전화수다, 인터넷/컴퓨터 하기, 운동하기(스포츠, 헬스, 걷기), 친구 만나기의 순으로 참여 정도가 높다. 이는 여가가 휴식차원에서 뿐 아니라 활동이나 관계 및 사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향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유형에 비해 TV/DVD/비디오 시청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여가의 가장 큰 비중이 이 항목에 할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1985년 한국관광공사의 <전국민여가활동실태분석>과 비교해보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TV 시청 같은 소극적인 여가 활동이 가장 선호되는 일관된 경향성이 유지되고 있다. 2위부터 4위를 차지한 음악듣기, 전화수다, 인터넷/컴퓨터 하기 또한 대부분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대중매체 감상(TV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독서, 대화 등 다소 정적이면서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휴식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소극적 여가로 본 파이어스톤과 셸턴(Firestone and Schelton, 1988)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주로 선호되는 여가 활동들은 대부분 소극적 여가에 속한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여가지향사회(Leisure oriented society)로 이행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주저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림 1> 여가활동 참여순위



1) 무직은 실직, 정년퇴직, 은퇴, 노령, 질병 등의 사유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한편 인터넷/컴퓨터 이용이 4위를 차지하여 TV/DVD/비디오 등과 더불어 매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다. 인터넷/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부상과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여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의 성격도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활문화의 한 양식으로서 여가 문화의 지형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여가에 대한 태도

전반적으로 개개인에게 여가활동은 자기 자신의 ‘실체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가의 기능을 여가 자체를 즐기는 본질적 가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용적 가치로 구분해본다면, 응답자들은 여가의 의미를 이 두 차원 모두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관계 강화에 대한 답변이 보다 우세하여 여가가 궁극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기능으로 더 많이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 전반적인 여가의 기능

	긍정	중립	부정	합계
실체감	823 (59.8)	280 (20.3)	215 (15.7)	1318 (95.8)
관계 강화	995 (72.3)	194 (14.1)	148 (10.7)	1337 (97.2)

단위: 빈도(%)

그런데 여가는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키워지는 것이다. 자유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인이나 사회와 관계되어 자신의 취미나 관심에 근거를 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으로 모두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경향을 “사회성 여가”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 2003),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가에 대한 “관계” 지향적 태도가 실제 직장이나 기존의 귀속 집단이 아닌 개인을 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삶의 보람으로 확대되어가는 사회성 여가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인맥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규명이 필요하다.²⁾

2) 이는 여가가 개별화(individuation), 사사화(privatization)되고 있다는 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가의 개별화는 여가가 공적으로 타인과 분리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경계가 지워진다는 의미이고, 사사화는 여가가 사사로운 일이 됨으로써 타인과의 직접적인 정서적 교류가 결여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로서 현대 여가문화의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인데(김문겸, 2002: 89)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분명 표면적으로나마 여가가 개별화, 사사화되기보다 관계적 욕구 충족이나 또는 관계성

여가의 목적으로는 휴식과 재충전이 많고, 유용한 대인관계 형성,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이 그 뒤를 따른다. 뒤마즈디에(Dumazedier, 1962)는 여가의 기능이 긴장완화(휴식), 기분전환, 자아계발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의 여가에서는 휴식의 비중이 가장 크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이 삶의 여유를 즐기기보다 앞만 보고 달리는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을 강요해온 것,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인 것으로 평가되는 긴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에 따른 피로의 누적 등이 여가의 창조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2> 여가의 목적

단위: 빈도(%)

	긍정	중립	부정	합계
휴식과 재충전	730 (53.1)	461 (33.5)	168 (12.2)	1376 (98.8)
유용한 인간관계 강화	544 (39.5)	566 (41.1)	240 (17.4)	1376 (98.1)
기술의 습득 및 향상	249 (18.1)	392 (28.5)	699 (50.8)	1340 (97.4)

이외에 유용한 인간관계 강화도 여가의 주요 목적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나 여기서 발견되는 관계성 추구는 친밀한 1차적 관계가 아닌 “유용한” 대인관계 형성의 목적으로 여가를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응답자들의 여가에 대한 도구적인 태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준다. 기술의 습득 및 향상처럼 자기계발과 관련된 부분은 앞의 두 가지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여가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 습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단정할 수 없어 수치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자유시간에는 ‘따분함’과 ‘조급함’을 느끼기보다 ‘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인 대다수가 일중독이며 OECD 국가들 중 여가소비 수준이 가장 낮다는 최근 조사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분함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활동 방식을 찾지 못했거나, 현재의 여가활동에 불만족스러워함을 나타내는 반면, 조급함의 감정은 여가를 뭔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시간 낭비쯤으로 치부하는 부정적, 강박적인 태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지만 응답률이 10% 이상으로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특수성을 보인다.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표 3> 자유시간 느낌: 따분함, 조급함, 일생각

	단위: 빈도(%)			
	긍정	중립	부정	합계
따분함	165 (11.9)	517 (37.6)	692 (50.3)	1374 (99.9)
조급함	171 (12.4)	342 (24.9)	859 (62.5)	1372 (99.7)
일생각	388 (28.2)	406 (29.5)	417 (30.4)	1211 (88.0)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여가는 자신의 '실체감'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나, 특히 관계 강화의 기능이 강하고, 주로 휴식과 재충전 등의 소극적인 의미나 유용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여가시간에 '일 생각'을 하는 등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생업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다.

3.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유형 및 여가에 대한 태도의 차이

1) 여가활동 유형의 구분

여가활동들의 유형 분류를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4개 요인을 각각 "활동형", "음주형", "휴식형", "관계형"으로 명명했다. "활동형"은 영화보러가기, 독서, 문화행사 참가, 인터넷/컴퓨터, 쇼핑, 음악듣기, 운동, 운동경기관람 등을 포함하며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802였다. 두 번째 요인은 술마시기, 노래방 가기 등의 "음주형" 여가로 신뢰도 계수는 .842이다. 세 번째는 친척만나기, 전화수다 등을 즐기는 "관계형" 여가로서, Cronbach's α 값은 .881이다. "휴식형"은 TV/DVD/비디오 보기, 낮잠자기로 구성되고 .920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의 여가 유형은 크게 집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활동형 여가와,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유흥을 위주로 하는 음주형 여가, 타인과의 만남과 대화에 초점을 둔 관계형 여가, 쉬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휴식형 여가의 네 형태로 대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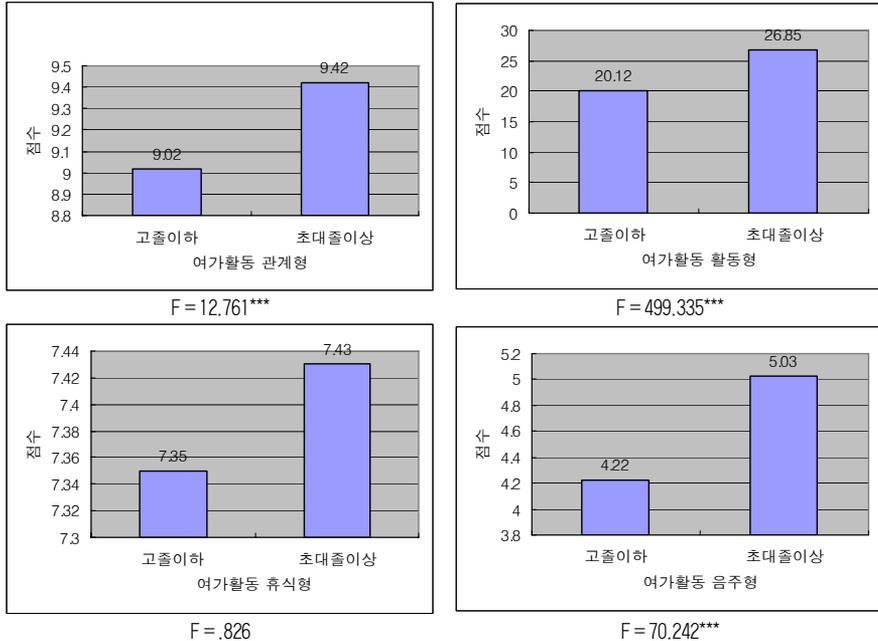
2) 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관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에서 고졸이하에 비해 초대졸 이상이 참여빈도가 높아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더욱 자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형 여가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유형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부르디외의 논의를 발전시켜 상층일수록 즐기는 문화의 폭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계층과 취향이 상응한다고 주장한 '다중취향(omnivore) 가설'을 상기시키는 지점이다. 다중취향 이론이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거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가 영역에 본격적으로 이 가설이 적용된 경우가 아직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의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휴식형 여가에 있어서는 학력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TV/DVD/비디오 보거나 낮잠 등이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유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활동형 여가에서는 그 차이가 크다. TV/DVD/비디오 보기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데 비해 활동형 여가는 상대적으로 비용과 노력, 의지가 필요한 까닭에 저학력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형 여가에 대한 참여도가 고학력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이는 음주가 회식이라는 형태로 조직생활의 연장으로 간주되고 노동의 영역과 여가의 영역을 교차하며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관계형 여가 역시 고학력층에서 더 많이 향유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와 동일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소득 역시 즐길 수 있는 여가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고학력, 고소득층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더 빈번하게 즐긴다는 잠정적 결론이 가능하다. 관계형 여가는 400만원 이상 소득층의 선호도가 확연하고, 활동형과 음주형 여가에서는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순으로 점차 참여 정도가 높아진다. 관람이나 감상 등을 포함하는 활동형 여가와 음주형 여가가 모두 일정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에 저소득층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휴식형 여가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휴식형 여가에 대한 저소득층의 참여가 많은 탓이다. 평균점수로만 본다면 월소득 200만원이하의 소득계층에서 많이 즐기는 여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 휴식형 여가였다.

<그림 2> 교육수준별 여가 활동 유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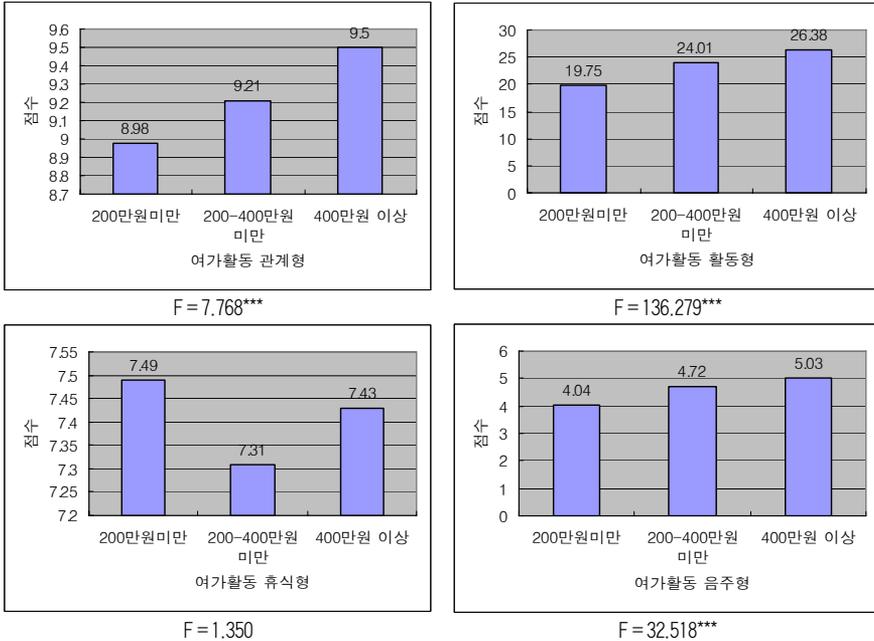


이 결과는 소득이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활동선택의 자원이 되므로 여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들을 뒷받침한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비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여가에 많은 지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식형 여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가 유형들에서 소득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에 따른 차이는 일단 관계형, 활동형, 휴식형, 음주형 모두에서 유의했다. 전반적으로 주부와 학생의 참여도가 높아 직업구조 내에서의 이들의 독특한 위상을 보여준다. 주부는 음주형을 제외한 여타 유형들을, 학생은 전 유형의 여가활동을 모두 적극적으로 즐긴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준전문직이 판매서비스직이나 생산/기능/노무직에 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검증 결과 관계형 여가의 경우에는 학생, 주부가 가장 적극적이며, 나머지 직종간 차이는 크지 않다. 활동형 여가에서는 직업에 따른 편차가 두드러진다. 학생, 사무/준전문직, 관리/전문직, 주부, 판매서비스직의 순으로 참여가 많고, 무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의 선호도는 현격히 낮다.

음주형 여가는 학생이 가장 많이 즐기고, 무직, 주부의 참여 정도는 매우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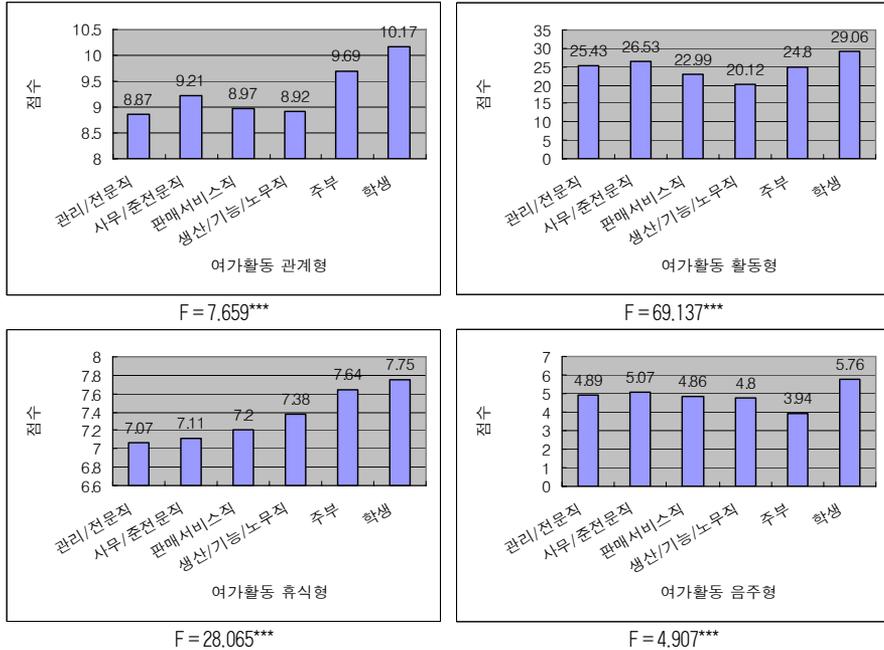
<그림 3> 소득수준별 여가 활동 유형의 차이



다. 그 중간에 위치한 여타 직업군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타직업군에 비해 사무/준전문직, 관리/전문직이 음주형 여가활동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하는데, 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그것을 술을 통해 해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휴식형 여가는 학생이나 무직, 주부가 가장 많이 즐기고, 다음으로는 생산/기능/노무직의 참여도가 높다. 육체노동자들이 지친 몸을 쉬기 위한 수동적인 목적으로 여가를 이용하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 주부, 무직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다. 관리/전문직과 사무/준전문직의 경우 휴식형 여가의 비중이 낮은 반면, 활동형 여가가 높게 나타나 이들이 자유시간에 보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유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학생, 주부의 활발한 여가 활동은 직종에 따른 특수성이기 보다는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여유 시간이 여가 활동의 기본적인 규정력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가용 시간의 양과 유연성이 주부와 학생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의 주요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주부와 학생을 별도의 직업군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이 경험하는 시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그림 4> 직업별 여가 활동 유형의 차이



밝혀준다. 그 외에 관리/전문직과 사무/준전문직은 활동형 여가의 비중이 높고 휴식형 여가의 비중이 낮은 반면, 생산/기능/노무직의 경우에는 그 반대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 계층 변수와 여가, 삶의 만족도

이제 여가의 객관적 요인인 여가활동 지수와 주관적 요인인 여가만족도, 더 나아가 전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 계층 변수의 직, 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여가의 빈도와 범위를 포괄하여 보여줄 수 있는 복합지수인 여가활동지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여가의 객관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될 경우 교육과 소득, 직업 변수가 여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동거가족수, 거주지역을 추가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설명력과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 소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도 여전히 여가활동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이다.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의 빈도와 범위가 넓어졌다. 각각의 직업변수를 분석에 투입해보면 직업의 영향력은 주부와 학생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들의 시간적 여유와 유연성이 여가활동의 객관적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여가 활동지수가 높다. 동거 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가 활동지수가 낮는데, 이는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에서 동거 가족수가 여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상의 변수들을 포함한 회귀식의 총 설명력은 39%이며, 교육이 여가지수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이고, 연령, 소득, 학생, 주부, 동거가족수의 순으로 여가활동의 빈도 및 범위를 설명해주는 정도가 크다.

<표 4> 여가활동지수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독립변인	B(β)
성별(여성)	.936(.054)*
거주지(비대도시)	.914(.052)*
연령	-1.321(-.231)***
교육	.321(.265)***
로그가구소득	1.570(.171)***
동거가족수	-500(-.073)**
직업(무직)	
관리전문직	-1.438(-.045)
사무/준전문직	.756(.033)
판매서비스직	-.269(-.010)
생산/기능/노무직	-.590(-.025)
주부	1.992(.084)**
학생	4.038(.123)***
R ² (adj)	.389

주: () 기준범주

*p<.05, **p<.01, ***p<.001

이렇게 사회계층 변수 중 교육과 가구소득이, 즐기는 여가활동의 범위와 빈도와 같은 양적이고도 객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여가활동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여가활동의 주관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한 영

향력은 어떨까? 여가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만족도가 높으며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의 경우에 여가만족도가 높다. 여가만족도는 가구소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여가활동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교육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았고, 직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의 경우 무직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역설적인 사실은 주부는 여가활동은 활발하지만 참여도에 비해 여가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주부들의 여가활동이 높게 측정되지만, 이들이 영위하는 여가가 질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5> 사회경제학적 변수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모델 2
성별(여성)	.218(.109)**	.186(.093)**
거주지(비대도시)	-.032(-.016)	-.080(-.039)
연령	.0619(.092)*	.107(.161)***
교육	-.012(-.014)	-.090(-.101)*
로그가구소득	.167(.155)***	.110(.102)**
동거가족수	-.084(-.106)**	-.062(-.078)*
직업(무직)		
관리전문직	-.193(-.054)	-.103(-.028)
사무/준전문직	-.127(-.048)	-.146(-.056)
판매서비스직	-.344(-.109)**	-.317(-.101)**
생산/기능/노무직	-.369(-.136)***	-.315(-.115)**
주부	-.010(-.004)	-.074(-.027)
학생	.405(.108)**	.255(.068)*
여가활동지수		.040(.338)***
R ² (adj)	.051	.121

주: () 기준범주

*p<.05, **p<.01, ***p<.001

<표 6> 사회경제학적 변수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요약

모델	R	R ²	R ² adj	추정값의 표준오차	변화량 통계량				유의확률 F변화량
					R ² 변화량	F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모델1	.243	.059	.050	.97753	.059	6.309	12	1202	.000
모델2	.361	.131	.121	.94013	.071	98.546	1	1201	.000

여기에 객관적인 여가활동의 참여범위와 빈도를 나타내주는 여가활동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R^2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다양하게 즐기는지에 대한 여가활동의 객관적인 척도가 주관적인 여가만족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빈도가 커질수록 여가만족도가 증가하며 이것이 다른 요인들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다양하고 빈번할수록 남성일수록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 외에 어떤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활동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식형 여가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형 여가, 활동형 여가, 음주형 여가를 독립변수로 추가해보았다. 여가의 유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 변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간접적인 차원에서 여가 만족도에 대한 계층의 영향력을 추론하게 한다.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동거가족수가 적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학생의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의 여가만족도는 낮다. 이는 앞에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여가활동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살펴보았을 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만족도의 차이가 드러났다. 활동형 여가가 네 유형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은 관계형 여가였다. 음주형 여가는 휴식형 여가에 비해서도 그 수치가 더 낮아서 술을 마신다거나 노래방에 가는 행위는 주관적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여가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화보러가기, 독서하기, 문화행사 참가하기, 운동, 인터넷, 컴퓨터하기, 쇼핑하기, 음악듣기 등의 적극적인 활동형 여가가 친구, 친척을 만나거나 수다 등을 즐기는 관계형 여가나 TV/DVD/비디오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휴식형 여가 혹은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음주형 여가에 비해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떤 여가활동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모든 여가활동 전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각 여가활동이 갖는 여가만족도의 차별성을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가유형별로 여가만족도가 상이하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여가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하여 여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가가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의 관점에서 계층 변수와 여가의 객관적인 수준과 유형,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회계층과 그에 따른 여가의 격차가 삶의 질 및 주관적 복지에서의 격차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여가활동이 전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사회경제학적 요인, 여가활동지수, 여가활동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 전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구소득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타 직종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여가활동이 전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모델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표 7> 여가활동유형별 여가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β)
성별(여성)		.265(.132)***
거주지(비대도시)		-.074(-.037)
연령		.101(.152)***
교육		-.124(-.138)**
로그가구소득		.113(.105)**
동거가족수		-.067(-.085)**
직업(무직)	관리전문직	-.142(-.039)
	사무/준전문직	-.175(-.067)
	판매서비스직	-.302(-.096)**
	생산/기능/노무직	-.302(-.111)**
	주부	-.108(-.040)
	학생	.272(.073)*
여가활동 유형(휴시형)	여가활동_관계형	.045(.090)**
	여가활동_활동형	.058(.356)***
	여가활동_음주형	-.039(-.071)*
R2(adj)		.133

주: () 기준범주

*p<.05, **p<.01, ***p<.001

전체 여가활동의 범위와 빈도를 모두 합한 여가활동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을 경우, 가구소득과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가활동지수를 추가하였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져, 다양한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즐기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여가활동지수를 여가활동유형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여가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듯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여가유형별 영향 역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8> 사회계층 변수 및 여가활동이 전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모델 2	모델 3
성별(여성)		.006(.003)	.002(.001)	.083(.046)
거주지(대도시)		-.034(-.018)	-.039(-.021)	-.039(-.021)
연령		.015(.025)	.037(.062)	.017(.028)
교육		.040(.050)	.014(.018)	-.005(-.006)
로그가구소득		.163(.170)***	.145(.152)***	.153(.159)***
동거가족수		.003(.004)	.006(.008)	.003(.004)
직업(무직)	관리전문직	.164(.050)	.192(.058)	.206(.062)
	사무/준전문직	.010(.004)	.008(.003)	.015(.006)
	판매서비스직	-.187(-.065)*	-.177(-.062)	-.139(-.049)
	생산/기능/노무직	-.157(-1.895)	-.120(.048)	-.103(-.041)
	주부	.103(.041)	.095(.038)	.070(.028)
	학생	.200(.058)	.170(.050)	.168(.049)
여가활동지수			.013(.121)**	
여가활동 유형(휴식형)	여가활동_관계형			.045(.099)**
	여가활동_활동형			.020(.006)**
	여가활동_음주형			-.066(-.133)***
R ² (adj)		.056	.062	.083

주: () 기준범주

*p<.05, **p<.01, ***p<.001

<표 9> 사회계층 변수 및 여가활동이 전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요약

모델	R	R ²	R ² adj	추정값의 표준오차	변화량 통계량				유의확률 F변화량
					R ² 변화량	F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모델1	.251	.063	.054	.88246	.063	6.885	12	1229	.000
모델2	.268	.072	.062	.87860	.009	11.830	1	1228	.000
모델3	.307	.094	.083	.87007	.031	13.294	3	1234	.000

주: 모델3은 모델1과 비교한 수치임.

여가활동유형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활동형 여가와 관계형 여가를 많이 즐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 중 활동형 여가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한편 음주형 여가를 즐기는 것은 휴식형 여가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체 삶의 만족도는 여가만족도와 유사하게 교육수준이나 직업보다는 가구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활동형과 관계형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자주 즐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즉 소득을 제외한 여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보다 전반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고 더 나아가, 특정 유형의 여가 즉 문화예술활동이나 독서, 음악듣기, 운동 등의 활동형 여가나 친구, 친척을 만나는 관계형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활동 특히 활동형 여가와 관계형 여가에 참여하는 것이 주관적 만족도로 측정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보드리야르(Baudrillard)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사회구성원들이 더 이상 부의 창출을 위한 노동만을 고집하기보다 여가 시간 확보에 따른 여유있는 소비문화를 즐기기를 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Baudrillard, 1970). 이 주장은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진실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사회에서도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사회구조가 여가 문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해석이 지배 담론으로 자리잡아왔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문직과 충분한 가처분 시간 및 소득을 보유한 사회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던 한국사회의 여가 문화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더 이상 상류층의 과시적 속성을 표상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계층, 성, 이익집단 등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산, 증가되어 대중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확산되었다(민웅기, 2002).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에서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소비의 불평등과 함께 여가에 대한 참여정도와 각 개인이 향유하는 여가의 질에도 계층별 차이가 발견되리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 답을 얻기 위해 먼저 한국사회에서 여가문화의 현주소를 밝힘으로써 기존의 긍정적 전망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제껏 다분히 연구자에 따라 임의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온 여가

의 개념과 유형을 보다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구성하는 탐색적인 시도를 해보고자 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여가생활에서의 격차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그 함의를 논의하자면, 여가 실태를 파악한 결과 비교적 여가의 종류는 다양하나 여전히 가장 많이 영위되는 여가활동은 TV/DVD/비디오 보기이고 그 밖에도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중매체가 현재 정보화, 산업화 사회에서 개인적 상황에 크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인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적인 활동을 통해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케 한다. 일의 영역은 '삶의 양'을 결정하고, 여가의 영역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Greenbie, 1940), 과연 TV 시청 등의 활동이 생활의 질 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여가의 기능 또한 다소 부차적, 도구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가에 대해 휴식, 재충전 등의 다소 소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 형성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방식은 한국사회에서 여가에 부여된 독특한 의미체계와 사회생활에서 인맥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큰 한국적 특수성을 엿보게 한다. 또한 여가시간을 갖더라도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부담감으로 여가에 대한 효용감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적극적, 생산적, 활동적인 여가 활동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여가의 의미나 여가에 대한 태도 또한 적극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에서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한 각각의 여가 유형에 대해 교육, 소득, 직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관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의 경우 고학력, 고소득층의 참여도가 높았다. 유일하게 휴식형 여가만이 교육과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저학력,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본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휴식형 여가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여가의 가용 시간과 유연성이 큰 학생과 주부의 참여도가 거의 전 여가유형에 걸쳐 높은 가운데,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준전문직이 판매서비스직이나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들에 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고 활동형 여가의 비중 또한 높다. 전반적으로는 휴식형 여가에 대한 선호가 지배적이나 나머지 영역들의 경우 계층 변수들이 여가 활동에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자 활동 선택의 자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가 향유가 빠른 속도로 보편화, 대중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리 사회 현상으로서의 여가 활동 참

여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것이 아니라 계층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선택되고 경험되어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가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계층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면에서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 활동지수가 높아졌다. 여가의 주관적 측면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며, 직종별로는 학생이 만족도가 높고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의 경우는 낮다. 동거 가족수 역시 여가만족도와 반비례한다. 객관적인 여가활동지수를 분석에 추가하자 이 변수의 영향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강력했고,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활동형 여가가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음주형 여가는 가장 낮았다. 소득, 직업 변수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교육 변수 역시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 계층 변수와 여가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자주 즐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고, 이를 여가유형별로 살펴볼 때, 여가만족도와 같은 결과로서 활동형 여가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활동형 여가가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여가 유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계층 변수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는 물론, 여가를 통한 간접적인 차원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적극적, 생산적, 활동적인 여가 활동의 비중이 낮고 여가의 의미나 여가에 대한 태도 또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가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은 물론 삶의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 격차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 시간 확보에 따른 여유있는 소비문화에 대한 욕망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본다면(Baudrillard, 1970), 그 욕망의 실현 가능성이 사회적 계층과 같은 사회적 구속력에 의해 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사회적 차원에서 기획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가 문화의 정착을 위한 관련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 물리적, 비용적 요인 등의 제반 조건들이 여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가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 적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기회를 보장해 주고 접근 용이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발견되고 재생산되는 차이와 불평등은 향후 더욱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구소득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는 삶의 주관적 복지의 격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을 기대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계층을 통일된 지표로 다루지 않고 교육, 소득, 직업의 개별 변수로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그 상대적인 의미와 영향력을 보다 풍부하게 보여주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계층을 단일지표로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계층이 단순히 교육, 소득, 직업 변수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보다 발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여가활동이 실제 주어진 여가시간의 많고 적음은 물론 노동 시간 및 강도와도 불가피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실제 노동의 양과 질 및 총 여가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향후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태욱·윤종일 (1999) 《소비양극화와 기업의 대응》 LG 경제연구원.
- 김문겸 (2002) “자본주의와 여가” 《사회연구》 11-42.
- 김문겸 (2004) “IMF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소비와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사회조사연구》 19: 1-32.
- 김영명·이명옥 (200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9(1): 123-132.
- 김혜영 (2004) “가족여가와 젠더” 《가족과 문화》 16(2): 127-166.
- 민승규 (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제 547호), 삼성경제연구소
- 박상곤 (2006) “문화자본이 여가소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0(6): 241-258.
- 박소정 (2002) “청소년기 여가활동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

- 연구》 14(2): 231-247.
- 보드리야르(Baudrillard, J)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 서우석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8(1): 273-302.
- 성희자·전보경 (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3(2):151-169.
- 신정화 (1995) “노인층의 여가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7: 83-85.
- 윤인진·김상운 (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13(2): 169-202
- 이만형·이철원·조남기 (2004). “전업주부의 여가 활동 및 여가 장애” 《한국체육학회지》 43(6): 821-834.
- 이정우·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79~109.
- 이철원·조상은 (2001) “청소년의 여가만족과 제약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학회지》 21: 179-194.
- 조광익 (2006). “여가소비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 자본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1): 379-401.
- 조성원 (2005) “외환위기 이후 소득 5분위배율의 구조적 변화” 《재정논집》 20(1): .93-109.
- 최미숙·최동숙 (2003). “중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5(1): 1-13.
- 최성애 (1999)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가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8(2): 45-56.
- 최희갑 (2002)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8(2): 1-19.
- 한국관광공사 (1985). 《한국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서울: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6 여가백서》
- 한신갑·박근영 (2007) “<구별짓기>의 한국적 문법” 《한국사회학》 41(2): 211-239.
- 홍종학 (2006)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응용경제》 8(2): 5-57.

- Burdge, R. J. (1969) "Levels of Occupational Prestige and Leisure Activ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Summer.
- Chieh-Lu Li, E. Garry, C.Z. D.A, James, and R.G., Alan (2007) "Ethnicity as a Variable in Leisure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3): 514-546.
- Clarke A. C. (1956) "The Use of Leisure and its Relation to Levels of Occupational Presti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June.
- Dardis, R, Soberon-Ferrer, and P. D. Horacio (1994)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4): 309-323.
-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 Y: The Free Press.
- Firestone, J., and B. A. Shelton (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242-343.
- Floyd, M. F., K. J. Shinew, F. A. McGuire, and F. P. Noe (1994) "Race, class, and leisure activity preference: Marginality and ethnicity revisite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158-244.
- Furlong, A., C. Rosemary, and R. Ken (1990) "The effects of post-16 experiences and social class on the leisure patterns of young adults" *Leisure Studies* 9(3): 213-224.
- Graham S. (1959) "Social Correlates of Adult Leisure-Time Behavior" in M.B. Sussman(ed.), *Community Structure and Analysis* New York, Crowell.
- Greenbie, S. (1940). *Leisure for living* N. Y. : George W. Stewart.
- Heather, J. G. (2006) "Leisure and Later Life: Past, Present and Future" *Leisure Studies* 25(4): 397-401.
- Henderson, K. A. (1996) "One size doesn't fit all: The meaning of Women'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139-155.
- Henderson, K. A. and B. Hickerson. (2007) "Women and Leisure: Premises and Performances Uncovered i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4): 591-611.
- Jackson, E., L. Rucks, and C. Victoria (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85-102

- Juniu, S. (2000) "The Impact of Immigration: Leisure experience in the lives of South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3): 358-362.
- Kaplan, M. (1960)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equity* John Wiley and Sons Inc.
- Kay, T. (2000) "Leisure, Gender and Family: The Influence of social policy" *Leisure Studies* 19(4): 247-265.
- Lee, Jin-Hyung, David Scott, and M. F. Floyd (2001) "Structural Inequalitie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A multiple hierarchy stratif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4): 427-450.
- McKechine, G. E. (1974)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 17-45.
- Nash, J. B. (1960) *Philosophy of Recreation and Leisure*. Iowa: William Brown.
- Nimrod, G. (2007) "Retirees' Leisure: Activities, Benefits, and their Contribution to Life Satisfaction" *Leisure Studies* 26(1): 65-80.
- Philipp, S. (2000) "Rac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1): 121-125.
- Rojek, C. (1990). "Baudrillard and leisure" *Leisure Studies* 9(1): 7-20.
- _____ (1995) "Veblen, Leisure and human need" *Leisure Studies* 14(2): 73-86.
- Stodolska, M, C. A. Santos (2006). "Trans-nationalism and Leisure: Mexican Temporary Migrants in the U. 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8(2): 143-148.
- Veblen, T. (1953). *The Theory of Leisure Class* Chicago: Mew America Library.
- Warde, A, G. Tampubolon, and M. Savage (2005) "Recreation, Informal Social Network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4): 402-426.
- Troy D. G. and J. L. Hemingway (2005) "Locating Leisure in the Social Capital Literat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4): 387-402.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the Leisure Activities in Korea: based on types and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Nam, Eun Young · Choi, Yu J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s of leisure in Korea and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 of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 data set of 1376 Korean men and women over 18 years old is analyzed to yield five main results. First, Korean prefers domestic entertainment to outdoor activities as is exemplified by domestic audio-visual entertainment(TV/DVD/VCR) which ranks the highest in the favored leisure activity. Leisur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activity-based", "relationship-based", "alcohol-based", "relaxation". Second, the function of leisure activity is to strengthen relationships. The main purpose of leisure activity is to relax and revitalize, while creating prospective social network ranks next to relax. But the effect of leisure time is often compromised by recurring thoughts related to work. Third, respondents with high educational and economic background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relationship-based," "activity-based", "alcohol-based" leisure type. However, such factors do not influence on "relaxation" type of leisure. While students and housewives rank highest in number of respondents, respondents with managerial/professional or white-collar/semi-professional occupations enjoy more diverse activities. Fourth, the effort to discern the significance of social class with respect to the leisure-activity-index revealed followings; the index scores elevate with higher education, younger age and higher income. Fifth, leisure-activity-index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gender, age, income and occupation. The younger the age and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it is the leisure satisfaction. Men are more satisfied with leisure activities than women. Students experience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while service/sales workers,

industrial/technical/blue-collar workers shows the least satisfaction. Also,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decreases significantly the leisure satisfaction. While "activity-based" leisure induces the highest satisfaction, "alcohol-based" leisure produces the least satisfaction. The frequency and diversity of leisure activities, and "activity-based" leisure incur the most positi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Leisure, Social Class, Education, Income, Occupation